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경관 독점하는 호텔 2개 층 철거 명령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11/athens-hotel-ordered-demolish-top-floors-blocking-acropolis-view-greece>

그리스 정부와 법원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경관을 가리는 대기업 소유 호텔에 대해 2개 층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년 전에 들어선 이 호텔은 그리스에 본사를 둔 매트리스 제조업체 소유의 건물이다. 지역 주민들은 10층짜리 호텔이 빼앗아간 아크로폴리스 경관을 지켜내자며 그리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년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건축가 등이 반대시위를 벌여왔으며, 온라인 청원도 제기해 2만 3,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여론과 시위가 점차 거세지자 그리스 중앙고고학위원회(KAS)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서구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호텔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최고행정법원도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21m 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리스는 2012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건축법을 통과시켜 적절한 환경 기준만 충족하면 대규모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대규모 관광객을 겨냥한 건축물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가 아이리니 프레자두(Irini Frezadou)는 “해당 지역에서 적어도 7개의 대형 호텔의 허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라도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은 고무적이나 아크로폴리스의 도시·문화적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건축과 계획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코스타스 바코야니(Kostas Bakoyannis) 아테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매우 용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아크로폴리스는 건축 이전에 그리스인의 영혼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더욱 위축될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칙을 만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hutterstock

아크로폴리스 경관